

임실, 산타축제 홍보 박차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서

임실군이 겨울철 대표축제인 '2019 임실산타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올해 산타축제는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축제의 아이콘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해마다 산타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임실군은 산타패레이드대회와 가족트리 만들기, 산타앨매존, 치즈컬링 체험을 비롯해 키즈콘서트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가을철 대표축제인 임실

N치즈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산타축제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만족도 높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 15일 임실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9 전북트래블마트에 임실산타축제와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비롯해 전북119안전체협관과 공동으로 임실의 주요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관광관련 업계, 유관기관(한국관광공

사 등) 등과 공동협력마케팅 사업이다.

여행업 및 마이스업, 관광전문 벤처사업가, 외국인 방송인 등 관광관련 업체 3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정보 및 이벤트를 실시했다.

군에서는 전북트래블마트 상담회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북119안전체협관을 비롯한 주요관광지와 12월의 대표축제인 임실산타축제에 대하여 여행사 등 관련업체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임실산타축제는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여행사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임실치즈체험도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임실의 대표 특산품인 임실치즈를 비롯하여 치즈초코파이, 치즈소시지와 전통삼계살엿에 대한 전시를 통해 임실특산물 홍보 효과도 특출히 봤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상품 기획과 마케팅 활동으로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유관기관 등은 물론 여행업계와도 상호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산타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겨울철 대표축제로 명성을 다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철저하고, 차별화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이 겨울철 대표축제인 '2019 임실산타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임실군 제21회 노인지도자 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는(지회장 이강년) 최근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노인회 임원, 노인지도자, 노인회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노인지도자 교육'을 가졌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노인지도자 교육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우수재 평생교육원 이정복 교수를 초빙하여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및 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민 군수는 "어르신들이 노인지도

자 교육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의 원로로서 존중받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일자리 창출, 노인대학 운영, 취업활동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남원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생장 피해 주는 방해요소 제거

남원시는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봄철에 심은 조림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최근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산림복지과, 산림조합, 산림사업 근로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봄철 식재한 편백나무 조림지 1.2ha에 고형복합 비료주기 및 조림목 주변의 맹아 등 생장에 피해를 주는 방해요소를 제거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 및 줄기의 활착이 잘 되어야만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나무의 나이에 맞는 작업을 통해 한 그루라도 정성껏 가꾸어 우리 숲을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평가

남원시, 전국 우수기관 선정

시민 편의 위주 건축행정서비스 돋보여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남원시는 전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건축행정 일반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올해 추가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참신성 특별부문에도 선정되며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는 건축민원 처리기간 준수는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건축정책 신뢰도

향상과 시민 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서비스가 더욱 돋보였다.

특히, '건축민원 비포 서비스 콜(Before Service Call)'을 제공해 복잡한 인허가를 쉽고 빠르게 사전에 안내하는 등 인허가 만족도를 높였으며,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 인허가 접수단계부터 시민과의 소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남원시 서광인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건축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 민원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김장나눔 봉사활동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소병중)는 우리 지역 내 김치가 필요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3개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의 봉사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김장나눔 봉사활동은 심민 임실군수, 이용호 국회의원,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한원수 도의회 부의장 등 각 기관단체장이 참여하여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봉사자들과 사랑을 듬뿍 담아 맛깔스런 김치를 정성껏 마무리해서 230세대에 전달하여 따뜻한 인심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임실군자원봉사센터는 관내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 유도과 봉사단체간의 유대감 증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화재대피용 마스크 지원

남원시가 전라북도 지자체 중 최초로 내년도에 노인복지관등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보급,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대피용 마스크란 특수용액으로 적셔있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재발생시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화재 인지 후 초기 4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 현상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질식사 하는 경우가 전체 화재사망의 66%로 화상 및 열상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제품인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다중이용 시설들이 갖추 수 있도록 권장활동을 통해 화재발생 시 구조 탈출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계농협 여성 봉사단체 '농촌사랑 자원봉사단'은 최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쳐 35곳의 마을 경로당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동계면 농촌사랑 자원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동계농협 여성 봉사단체 '농촌사랑 자원봉사단'(회장 장경숙, 이하 농촌사랑 봉사단)은 최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쳐 35곳의 마을 경로당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 농촌사랑 봉사단 회원 20여명이 함께했으며, 특히 올해 순창장류축제 기간동안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300여 포기의 배추김치를 직접 담아 어르신들의 겨울철 식사지원에 힘을 보탰다.

농촌사랑 봉사단은 농협과 함께하는 봉사 단체로, 김장김치 지원 뿐만 아니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아 면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성 단체다.

장경숙 회장은 "동절기 점심 식사를 하는 각 마을 경로당에 김치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회원들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봉사에 함께한 정수택 동계면장은 "순창장류축제 기간동안 먹거리 부스 운영부터 김장김치 봉사까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